

ACC시네마테크 사업 중단 우려

문화전당 일원화 따라 채용 공고서 기획업무 빠져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실상 폐기 선언” 반발



지난해 ACC시네마테크 특별 기획전에서 선보인 '여섯 그리고 하나-알라성에서 서울영화집단까지' (ACC 제공)

지난 2015년 '아시아의 필름엔비디오'로 출발한 ACC시네마테크는 연구와 수집을 비롯해 상영, 제작, 유통까지 다양한 영화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한국영화 100주년 특별전 '한국나쁜영화 100년'을 비롯해 한국 최초 영화동아리 '알라성'의 '여섯 그리고 하나:알라성에서 서울영화집단까지' 등을 기획하며 한국영화의 숨겨진 자료들을 보여줬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5·18 영화주간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5·18 상흔을 지우기 위한 관제행사 '국풍81'을 비판한 작품 '국풍'을 상영해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화에 따라 향후 ACC시네마테크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최근 광주영화회에서 제기됐다. 시네마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기획 업무가 빠진 채 단순한 운영 지원이나 실험영화 전시나 제작 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올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비디오 기획전'의 전시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한국비디오 기획전'은 광주의 영화인 조대영이 수십 년 동안 수집한 비디오컬렉션 3만 점을 통해 지역 영화 활동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지역영화인들과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전당 공무원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문화원)의 5개 원에서 수행해오던 콘텐츠 기획은 학예연구사 직군으로, 시설관리와 기술업무는 전문경력관 가/나/다 직군으로 구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콘텐츠 기획 직군이 학예연구사로 채용되는데 반해 시네마테크는 기획 업무는 빠진 채 운영지원 업무로 바뀌어 전문경력관 직군으로 채용 공고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콘텐츠 기획에서 학예연구사나 학예연구관은 연구자나 기획자와 같은 전문 직군이지만 전문경력관 '다' 직군은 운영이나 지원,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화전당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전문경력관 '다'군 업무는 기존의 '시네마테크 사업' 외에도 XR 스튜디오 영상촬영 및 편집, 랩 프로젝트 메이킹 필름 영상 제작, 메타버스(아시아문화채널) 실시간 송출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재섭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무처장은 "이는 문화전당이 영화사업을 바로 폐기할 수 없어 억지로 짜 맞추는 구색 맞추기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실질적인 시네마테크 사업의 폐기선언

에 가깝다는 것이 예술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관 이래 7년 넘게 수집해온 800여 점의 아시아의 영화 자료들과 활용사업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시네마테크가 실험영화 위주라 시민들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기획 업무가 배제된 채 단순 전시나 지원 업무 위주로 시네마테크가 진행될 경우 향후 융복합콘텐츠와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와 AI,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 기초 토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문화전당 관계자는 "이번 담당 업무와 직급 편성은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부와 기재부가 함께 머리를 맞췄다"며 "향후 자세한 업무는 조치가 새롭게 꾸려지고 뒤, 각과의 과장들이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콘텐츠 중 최초로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징어 게임' 83개국 넷플릭스 1위 신기록

이정재 등 출연진 美 토크쇼 출연 아마존창업자 "작품 성공 인상적" 인간 욕망 다룬 메시지 흥행 요인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해 화제다. 이러한 세계적 열풍을 반영하듯 해외 유명 인사들도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정재 등 출연진들은 미국 토크쇼에 출연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마침내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른바 '발리우드'로 불릴 정도로 영화 산업이 강세인 인도 시장의 벽마저 뚫고 명실상부한 전 세계 1위 달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넷플릭스 콘텐츠 중 83개국에서 1위에 오른 건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다.

지난달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면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더는 몰라낼 곳이 없는 이들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미스터리한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의 활동형 감독이 연출했으며, 이정재를 비롯해 박해수·오영수·위하준·정호연·허성태·아누팜 트리파타·김주령 등이 출연한다.

방송가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은 물론 세계 드라마에서 꾸준히 회자할 작품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데 여념이 없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요소는 ▲인간의 욕망을 다룬 메시지 ▲긴장과 이완을 절묘하게 버무린 빼어난 연출력 ▲메시지 전달을 위한 주된 소재인 게임 규칙의 단순함 ▲무대 미술의 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메시지 측면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

충'처럼 지하에 내몰린 인류의 욕망을 건드렸다는 점이 호평받는다. 현생 인류 대부분이 채무자로 사는 시대, 어려운 게임도 아닌데 운만 잘 따르면 '한탕'으로 처참하고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다니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년 전부터 기획했다는 황 감독의 군더더기 없이 뛰어난 연출력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1~3회 전반부에서 보여준 긴장과 이완은 탁월했다는 감성평이 쏟아진다. 목숨을 건 놀이 같은 게임을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보여주고, 동시에 강력한 긴장 상태에서 '특목' 던지듯 이완 장면을 배치해 지루할 틈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작품의 핵심 소재로 등장하는 전통적인 놀이, 게임들이 단순한 것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데 큰 몫을 했다.

또 지금까지 나온 한국 드라마 중 가장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창의적인 무대 미술을 보여줬다는 반응도 뜨겁다. 실제로 작품에 등장한 트레이닝복부터 거대한 인형까지 소품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며 인기리에 팔리는 것은 '오징어 게임'의 주요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미של'이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열풍을 반영하듯 해외 유명 인사들도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의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오징어 게임'의 스틸컷을 올리며 '넷플릭스의 국제화 전략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매우 인상적이고, 영감을 준다"며 "이 드라마를 빨리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작품 인기와 함께 주·조연 배우들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우 이정재·박해수·정호연·위하준이 미국 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팅 지미 펠린' (이하 '지미 펠린쇼')의 특별 게스트로 나서 전세계 팬들과 만난다.

이들은 화상 연결로 출연해 지미 펠린과 특별 인터뷰를 할 예정이며 5일(현지 시각) 녹화 후 방송은 6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화재진압·산악구조...앵글에 담긴 소방관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시지회 7일까지 갤러리디 인상사진전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시지회(회장 문달순)는 7일까지 광주시 동구의 갤러리디 (관장 강경자)에서 제 3회 인상사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매 전시마다 삶의 타점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물들을 소재로 전시회를 여는 프로사진협회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술한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을 주제로 현장 로케이션과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 앵글에 담은 52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그대 소방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화재진압, 산악구조, 암벽구조, 수난구조, 119특수구조, 구급대 등 가장 많은 땀을 흘리고 생사를 오가는 순간을 일상으로 극복해 가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담았다. 출동을 준비하는 소방관의 결의 찬 모습(채만수 작 '나는 소방관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두터운 콘크리트 벽을 뚫어 구조공간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소방관들의 찰나의 모습(정제식 작 '구조공간 확보') 등이 담겼다. 또 치열한 일터와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여성구급대원의 모습을 담은 이성열 작가의 '반전매력'도 눈길을 끈다.

전시에는 문달순·김남호·김동근·김인숙·김정원·김정현·윤병선 작가 등 모두 26명이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채만수 작 '나는 소방관이다'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